

Time evolution of the 3D structures of graphene hydrogels in oscillatory shear flow

김지은, 박재우, 이현상*

동아대학교

(heonlee@dau.ac.kr*)

수용액에서 GO가 super gelator 역할을 하기 때문에 GO하이드로겔과 에어로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. GO 하이드로겔을 기반으로 그래핀 에어로겔을 제조하기 때문에 GO 하이드로겔의 3 차원 구조의 이해 또한 에어로겔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. 응력 완화가 구조적인 변화에 필요한 시간보다 훨씬 빠른 경우 분산액의 미세 구조의 진화는 작은 진폭의 진동 전단(SAOS) 측정을 통해 모니터링 할 수 있다. 저장 탄성률 (G')은 젤의 네트워크 포인트 수와 젤화 진행의 증가를 반영하여 많은 연구자들은 GO와 고분자의 젤화의 정도를 모니터링 할 때 SAOS 측정을 사용한다. 그러나, SAOS 측정이 젤의 구조적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경우 결과가 왜곡 될 수 있다. Oscillatory-shear가 유도된 ordering은 종종 농축된 콜로이드 혼탁액에서 관찰된다. 본 연구에서는, GO와 poly(vinyl alcohol)(PVA)로 구성된 수성 분산액의 유변학적 연구를 통해 젤화를 연구었으며 SAOS가 그래핀 분산액의 젤화를 유도 하는 특이한 현상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최초의 보고를 하고자 한다. 이미 보고된 nano-clay 및 nano-silica가 고분자에 분산된 쉐이킹 젤은 전단 흐름에 유도되어 흐름이 중단되면 다시 솔루션이 된다. 하지만 본 연구에서 SAOS로 유도된 GO하이드로겔은 흐름이 중단된 후에도 젤 상태가 유지되었다. SAOS에 의해 유도되어 젤화가 완료된 후 측정된 유변학적 특성은 3-D 네트워크 구조와 관련이 있으며, 따라서 에어로겔의 밀도, 전기 전도도와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다.